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나혜	학번	2014****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6.1.5. ~ 2016.2.28.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위치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이기에 수빅에서 4시간 동안 가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어울려 활동하고 영어 회화를 함으로써 영어 능력이 향상 된 것 같습니다.</p>
수업	<p>수업은 최근 이슈에 대한 회화, 단어, 회화패턴, 문법, 멀티미디어, 토익 스피킹(선택자유), 리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p> <p>보통 수업은 책의 내용과 관련되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이야기 나눕니다.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회화 실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처음 필리핀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분반 테스트를 치룹니다.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레벨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었기에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자극시키고 복돋아 주었습니다.</p> <p>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가끔 억양이 심하거나, 학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단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얘기하는 선생님, 자신의 성향과 잘 맞지 않은 선생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항상 학생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생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과제는 보통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양이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수업 중에 내주는 과제와 자기주도 학습(토익, 토플 공부)을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p> <p>수업은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항상 주제를 놓고 학생들과 선생님이 그룹별, 1:1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주말마다 학원 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빅 투어, 요트, 바다, 열기구 축제, 동물원, UP 등이 있습니다.</p> <p>모든 활동들에는 필리핀 선생님들이나 한국인 스태프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추가 비용이나 준비물은 무슨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1~2월은 습하지 않았고 다른 계절보다 덜 더웠습니다.</p> <p>하지만 필리핀 기후 특성상 무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학생들이 필리핀에 도착한 후 일주일 뒤 물같이 현상(설사,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했었습니다. 지사제나 진통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이밖에도 학원 밖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을 경우 편의점에서 따로 물을 구입 후 음식점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수빅은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지역이기에 다른 지역들 보다 좀 더 편히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p> <p>또한 모든 장소에 경찰이나 가드가 순찰을 돌기 때문에 안전한 것 같습니다.</p>
숙소	<p>기숙사 시설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여학생층으로 가는 계단(또는 각 층마다)에 cctv를 설치했으면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고 더 안심됐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이 속옷을 제대로 말릴 수 없던 점이 가장 불편했습니다.</p> <p>방안에 말리기도 애매했던 점이, 학생들 수업시간 동안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남녀 각 2-3명으로 대략 5명입니다. 그분들이 한 방에 들어와 청소하기 때문에 방안에 속옷을 걸어 둘 수 없어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습니다.</p> <p>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어린아이들과 함께 학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한 예로, 초등학생 한명이 계속 저희 학교 학생들을 불쾌하게 만들어 대부분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input checked=""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p> <p>음식은 대체적으로 입맛에 맞아 좋았습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때 먹었던 급식과 비슷합니다.</p>
교통	<p>수빅 내 시내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중교통 수단인 FB로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p> <p>밤늦게 귀가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56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및 유흥비	300,000원	단합 등으로 외식, 술 지출 지용, 마사지 비용
주말활동 참여 비용	70,000원	활동마다 다름
기념품	50,000원	-
합계	1,986,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필리핀 선생님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점입니다. 마지막 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자유 임) 필리핀에서는 딱히 선물 드릴만한 물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파견 전에 아기자기하거나 성분 좋은 한국 화장품('에뛰드하우스' 추천)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한국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편지지를 꼭 챙겨왔음 하는데, 그 이유는 필리핀 펜시점은 한국에 비해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분명 편지 쓰는 날이 생길 테니 챙기길 바랍니다...!

또한 지사제와 진통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약품이라 생각합니다. 필리핀 생활의 적응기간이 길어 언제 배탈이 날지 모르니 챙겨 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 전에 선생님들께서 달리는 조금만 챙겨가고 나머지는 비자나 마스터 카드에 돈을 빼서 쓰라 하시는데 비추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쓸 달러 넉넉히 가져와서 조금씩 환전해서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한번 뽐을 때마다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려면 달러를 가져와 환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생각보다 영어 회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은땀만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학원 밖에서 공공교통수단(FB, 지프니)을 이용하며 그 안에 함께 탑승한 현지인들과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를 만들 만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점을 자유롭게 영어로 술술 이야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깨달은 점이 많아 공부를 열심히 하여 교환학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02.11.2016 필리핀 고아원 봉사 갔다 온 날
가장 친근했던 동생 Dana와 Elsie와 떠나기 전에 추억 남기기.



02.06.2016 포락 샌드박스에서



02.02.2016 UP마닐라 방문

마닐라 대학교에서 서로 소통을 나누고 친구가 된 날



01.09.2016. subic tour

선생님들과 함께 지프니 타고 subic bay, olongapo를 돌아본 날



02.24.2016 필리핀 떠나기 d-2

가장 친한 선생님들과 팀원들이랑 함께 단체 사진



02.28.2016 마닐라 공항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다함께 단체 사진